

사별노인의 성별에 따른 의존성과 학대 및 우울에 관한 연구

김 옥 수¹⁾ · 양 경 미²⁾ · 김 계 하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학의 발달과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2).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별인구는 약 9만 4천 명 정도로 이는 2001년의 9만 명, 2000년의 9만 2천 명 등에 비해 증가된 수치이다. 사별한 노인들은 사별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Hur & Yoo, 2002; Lee & Min, 2002) 노년기의 우울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만족을 저하시키고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Hur & Yoo, 2002) 노인에게 대한 우울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별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중재해 주는 간호연구가 필요하다.

사별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먼저 노인학대를 들 수 있는데 노인학대의 유형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노인을 폭행하는 신체적 학대까지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약 5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h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1998),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 3명 중 1명은 한 차례 이상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3). 전화상담을 통한 조사결과 학대받는 여성의 76.2%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1). 이와 같이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Dyer, Pavlik, Murphy, & Hyman, 2000; Dyer & Goins, 2000) 사별노인이 받는 노인학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에 대한 학대는 노인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는 의존적인 노인과 이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가족원의 갈등이 전개될 때 여러모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인이 학대의 희생자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Choi, Kong, & Han, 1998). 특히 사별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의 약화로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나 종속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의존성은 배우자의 생존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ong, Kim, & Lee, 1997; Kim & Kim, 1996).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사별노인의 의존성 증가는 학대를 유발하고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Bornstein, Bowers와 Susannah(1996)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사회학습으로 인하여 여성에게서 의존성 관련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고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정신건강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학대 대상 역시 성별로 볼 때 여성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Han & Kim, 2000; Kim & Kim, 2003).

따라서 의존성과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경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노인의 성 차이를 고려한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사별노인, 의존성, 노인학대, 우울

1)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2)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3)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박사과정
투고일: 2004년 9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3월 30일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별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의존성과 학대 및 우울을 비교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별노인의 의존성과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른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우울의 정도를 비교한다.
- 성별에 따른 의존성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성별에 따른 의존성 및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용어의 정의

- 의존성 : 의존성이란 생존이나 지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 또는 사물에 의지하는 상태로(Baker, 1987) 본 연구에서는 Ahn(1999)이 개발한 의존성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학대 : 학대란 고의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O'Malley, Segal, & Perez, 1979)으로, 본 연구에서는 Seo(2000)가 개발한 유형별 노인학대 인지도구 중 정서적 학대 10문항과 신체적 학대 7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우울 :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 본 연구에서는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을 Jung 등(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해서 표준화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별노인의 의존성과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수원, 광주,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으로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현재 적어도 1명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는 남녀 노인 246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대상자들은 정신질환이나 기질적 뇌 장애 증후가 없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 의존성 : Ahn(1999)이 개발한 17문항의 의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의존성을 측정하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혼자 할 수 있다(1점)”에서 “전혀 할 수 없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총점의 범위는 17-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Ahn(199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가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 학대 : Seo(2000)가 개발한 유형별 노인학대 인지도구 중 정서적 학대 10문항과 신체적 학대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없다(1점)”, “거의 없다(2점)”, “가끔 있다(3점)”, “자주 있다(4점)”, “항상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신체적 학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총점 범위는 각각 10-50점과 7-35점이다. Yang(2003)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Cronbach's α 가 각각 .90,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1, .89였다.
- 우울 :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을 Jung 등(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체 30문항으로 “예(1점)”, “아니오(0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내용의 10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우울 총점의 범위는 0-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 등(199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로 65세 이상의 재가 남녀 노인 2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복지시설 및 노인경로시설, 공원,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일

대일로 면담하면서 연구목적과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얻었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해 주면서 노인이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노인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문도중 대상자가 응하지 않아 즉각 철회한 자료 5부와 수거된 설문지중 무응답이 많거나 노인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로 부적당한 14부를 제외한 총 24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이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우울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의존성 및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아보기 위해 정서적 학대를 종속변수로, 의존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과 신체적 학대를 종속변수로, 의존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근거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노인 중 활동이 가능한 사별노인을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경로시설이나 공원, 노인정 등에서 대상자를 표출하였으므로 실제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종교, 한 달 생활비, 가족형태를 확인하였다<Table 1>. 남자노인의 평균연령은 77.64세, 여자노인은 76.21세로 거의 비슷하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246)

Characteristics	Male(n=100)	Female(n=146)	t or χ^2	p
	n(%)	n(%)		
Age (year)				
M±SD	77.64±6.60	76.21±7.20	1.588	.114
Education				
No education	32(32.0)	92(63.0)		
Elementary school	40(40.0)	37(25.3)	25.420	.000
Middle school	17(17.0)	8(5.5)		
High school	5(5.0)	3(2.1)		
College or over	6(6.0)	6(4.1)		
Religion				
Buddhism	26(26.0)	27(18.5)		
Christianity	23(23.0)	55(37.7)	13.830	.007
Catholicism	9(9.0)	21(14.4)		
Others	8(8.0)	2(1.4)		
No religion	34(34.0)	41(28.1)		
Living expenses (Ten thousand Won/month)				
Less than 30	40(88.9)	22(75.9)		
30 - <50	3(6.7)	4(13.8)	2.333	.340
more than 50	2(4.4)	3(10.3)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married son	81(81.0)	104(71.2)		
Living with married daughter	10(10.0)	22(15.1)	3.575	.321
Living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4(4.0)	12(8.2)		
Others	5(5.0)	8(5.5)		

다. 교육수준은 남자노인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40%로 가장 많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무학이 63%로 가장 많아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노인은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성노인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생활비는 두 집단 모두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는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우울 정도

의존성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68, p=.003$).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우울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노인에서는 의존성($\beta=.304, p=.003$)이 정서적 학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변수의 설명력은 9.2%이었다. 그러나 의존성이 신체적 학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의존성이 정서적 학대($\beta=.477, p=.000$)와 신체적 학대($\beta=.227, p=.00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정서적 학대가 22.8%, 신체적 학대는 5.2%이었다.

우울을 종속변수로,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beta=.285, p=.025$)만이 우울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 우울에 대한 3개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에서는 정서적 학대($\beta=.517, p=.000$)와 의존성($\beta=.337, p=.003$)이 우울을 설명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대한 3개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51.7%이었다<Table 3>.

우울에 미치는 요인의 효과 분석

남성노인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적 학대($\beta=.285, p=.025$)로 나타나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 남성노인의 의존성은 우울에 직접적인

<Table 2> Dependency,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depression by gender (N=246)

	Possible range	Male (n=100)		Female (n=146)		t	p
		M±SD		M±SD			
Dependency	17-85	39.27±10.03		43.28±10.36		-2.968	.003
Emotional abuse	10-50	16.95± 6.20		18.67± 8.76		-1.784	.076
Physical abuse	7-35	7.29± 1.14		7.56± 1.88		-1.389	.166
Depression	0-30	17.39± 6.30		16.41± 9.41		.871	.384

<Table 3> The regression analyses for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depression (N=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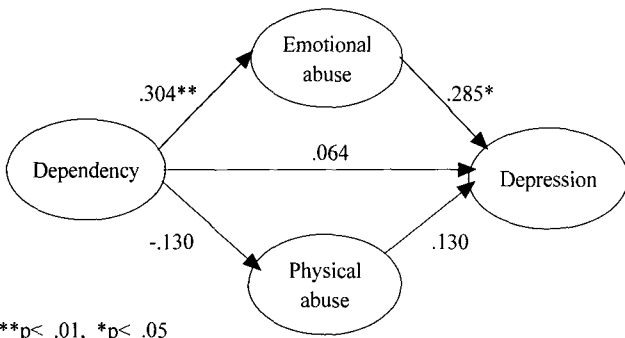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ale (n=100)				Female (n=146)			
		β	R ²	F	p	β	R ²	F	p
Emotional abuse	Dependency	.304	.092	9.374	.003	.477	.228	40.722	.000
Physical abuse	Dependency	.130	.017	1.597	.209	.227	.052	7.571	.007
Depression	Dependency	.064	.082	2.353	.581	.337	.517	45.951	.000
	Emotional abuse	.285			.025	.517			.000
	Physical abuse	-.130			.276	-.060			.374

<Table 4> The total effect on depression (N=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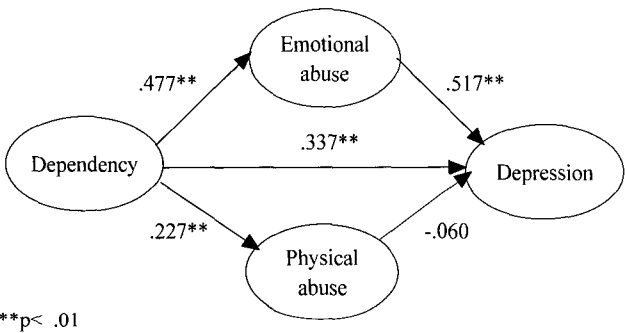
Gender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ale	Dependency	None	Dependency→Emotional abuse→Depression (.304)×(.285)=.087	.087
	Emotional abuse	.285	None	.285
	Physical abuse	None	None	None
Female	Dependency	.337	Dependency→Emotional abuse→Depression (.477)×(.517)=.247	.584
	Emotional abuse	.517	None	.517
	Physical abuse	None	None	None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064, p=.581$) 정서적 학대($\beta=.304, p=.003$)를 통해 우울($\beta=.285, p=.025$)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eta=.087$)의 경로를 나타내었다<Table 4>.

여성노인의 경우,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존성($\beta=.337, p=.000$)과 정서적 학대($\beta=.517, p=.000$)였다. 의존성은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beta=.477, p=.000$)를 통하여 우울($\beta=.517, p=.000$)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효과($\beta=.584$)를 볼 때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의존성이 높으면 우울이 높아지고, 의존성이 높아 정서적 학대를 받게 되면 이로 인해 우울 정도가 증가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우울에 영향을 미쳐($\beta=.517, p=.000$) 여성노인이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졌다<Table 4>.



<Figure 1> Path model on depression of male subjects



<Figure 2> Path model on depression of female subjects

논 의

본 연구는 사별노인의 성별에 따라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우울을 비교하고 의존성과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남성 노인의 의존성 정도의 평균 점수는 39.27이고 여성노인은 43.28점으로 나타나 일반 여성노인에서 보고된 의존성 정도 34.88점보다 높았다(Ahn, 1999).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의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별한 노인들이 그동안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사회적 관계를 타 구성원에게 의지함으로써 대체하려는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로 볼 때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의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Hong et al., 1997)를 지지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긴 수명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노인보다 더 자녀에게 의존적이 될 수 있으므로(Choi et al., 1998; Lee, 200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학대정도의 범위는 정서적 학대가 10-50점, 신체적 학대가 7-35점인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정서적 학대 정도는 남성노인의 경우 16.95점, 여성노인은 18.67점이었고 신체적 학대는 남성노인이 7.29점, 여성노인 7.56점으로 나타나 학대 정도는 비교적 낮았다. 이는 비록 사용한 도구는 다를지라도 노인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 정도를 중간치 이하라고 보고하였던 연구결과(Han & Kim, 2000)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 행위가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며 노인들 자신이 자녀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한 학대를 남에게 보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며 사실상 학대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학대의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정서적 학대 정도를 “가끔 있다”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응답한 경우가 평균 24% 정도이고 신체적 학대는 약 11%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일본 노인들이 인지하는 학대 실태가 18% 정도이며(Tsukada, Saito, & Tatara, 2001) 영국에서는 노인이 부양자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적어도 4%인 것으로 보고된 결과(Kmietowicz, 2004)와 비교할 때 정서적 학대의 경우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학대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면담이 좀 더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여성노인에서 학대 경험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Fulmer, Guadagno, & Bolton, 2004; Han & Kim, 2000)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대상자들이 사별노인만이 아닌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이러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특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남성노인의 우울 정도는 17.39점이며, 여성노인의 경우는 16.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척도와 동일한 도구로 저소득 계층 노인들의 우울을 측정된 Lee와

Min(2002)의 연구결과에서 사별하지 않은 노인의 우울 정도가 남성노인은 9.6점, 여성노인은 16.8점이었던 것에 비해 남성노인의 경우는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Hur & Yoo, 2002; Lee & Min, 2002)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결혼을 한 집단이나 미혼상태인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다른 가족원들과 함께 동거한다 할지라도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에게 우울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별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놓여있는 노인 대상자들과 일반 노인들의 우울을 비교하여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중재해주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 노인 모두에서 의존성이 정서적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Han & Kim, 2000; Kim, 2001; Dyer et al., 2000)이 학대와 관련된 요인으로 의존성을 제시했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의존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에서는 의존성이 신체적 학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는 의존성이 신체적 학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이는 여성노인이 의존적일 때는 남성노인이 의존적일 때보다 더 쉽게 가해자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는 성차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대 가해자의 인격적인 성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간과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사별노인들의 간호사정 시에는 성별에 따른 특성과 가족구성원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두 집단 모두 정서적 학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유형의 학대유형과는 다르게, 구분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문제로 관대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Choi, 1993)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축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는 남녀 노인 모두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로 인해 피해받는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우울증의 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Dyer와 Goins(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사별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를 받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구를 통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남성노인의 경우 의존성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정서적 학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의존성이 정서적 학대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kkinen 등(2004)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남녀 모두 신체의 기능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신체적 기능상태 저하로 인한 의존성이 클수록 우울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의존성이 남성보다 큰 반면 우울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대상자들의 경우와 비교할 만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므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별노인의 의존성과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 비교하기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재가 노인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hn(1999)이 개발한 17문항의 의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측정은 Seo(2000)가 개발한 유형별 노인학대 인지도구 중 정서적 학대 10문항과 신체적 학대 7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을 Jung 등(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우울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의존성,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우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근거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존성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았으나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및 우울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 남성노인의 경우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적 학대였으며 우울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

은 8.2%였다. 의존성은 정서적 학대를 통해 우울에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여성노인에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의존성과 정서적 학대가 있었으며, 의존성은 정서적 학대를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51.7%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사별한 노인의 의존성은 일반 노인의 의존성보다 높으며 특히 사별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남성노인의 의존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별한 여성노인의 의존성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E. S. (1999). *Construction of dependency model in ol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Baker, R. L. (1987). *The social work dictionary*. Marylan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c, Maryland.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 Rep*, 4, 745-746.
- Bornstein, R. F., Bowers, S., & Susannah, B. (1996). Relationships of objective and projective dependency scores to sex role orientation in college student participants. *J Pers Assess*, 66(3), 555-568.
- Choi, H. K. (1993). A study of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elderly abuse. *Jeonju Univ J*, 22, 273-286.
- Choi, S. H., Kong, M. H., & Han, D. H. (1998). The study of situation in abused female elderly. *Korean J Soc Welfare*, 34(4), 189-214.
- Dyer, C. B., Pavlik, V. N., Murphy, K. P., & Hyman, D. J. (2000). The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dementia in elder abuse or neglect. *J Am Geriatr Soc.*, 48(Feb), 205-208.
- Dyer, C. B., & Goins, A. M. (2000). The role of the interdisciplinary geriatric assessment in addressing self-neglect of the elderly. *Generations*, 14(2), 23-27.
- Fulmer, T., Guadagno, L., & Bolton, M. (2004). Elder mistreatment in women.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33(5), 657-663.
- Han, E. J., & Kim, T. 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J Korea Gerontol Soc*, 20(2), 71-89.
- Hong, C. S., Kim, H. L., & Lee, S. H. (1997). A study on the ADL dependency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home resident elderly. *Chungnam Med J*, 24(1), 43-56.
- Hur, J. S., & Yoo, S. H. (2002).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lderly persons. *Ment Health & Soc Work*, 13(6), 7-35.
- Jung, I. K., Kwak, D. I., Shin, D. K., Lee, M. S., Lee, H. S., & Kim, J. Y. (1997).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1), 103-112.
- Kim, H. J. (2001). *A study on the elderly women's abuse*.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Y., & Kim, H. S. (2003). Conjugal violence and mental health of Korean elderly women. *J Korea Gerontol Soc*, 23(2), 51-65.
- Kim, K. M., & Kim, H. K. (199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cy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in elderly pati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8(1), 110-123.
- Kmietowicz, Z. (2004). Thousands of elderly people face abuse, says Commons report. *BMJ*, 328(24), 971.
-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2). *Death by sex/age/marital status*. www.nso.go.kr.
- Lee, C. G., & Min, S. Y. (2002).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mood of low socioeconomic class lived in a city. *Chosun Med J*, 27(1), 1-6.
- Lee, Y. H. (2003). The impact of elder abuse risk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s elder abuse. *J Korea Gerontolo Soc*, 23(2), 105-123.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3). *One out of three elderly experience abuse*. http://www.humanrights.go.kr.
- O'Malley, H. C., Segel, H. D., & Perez, R. (1979). *Elder abuse in Massachusetts; Survey of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Boston: Legal Research and Services to the Elderly.
- Seo, Y. (2000).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and the conditions of elder abuse. *J Welfare for the Aged*, 7(1), 29-71.
- Takkinen, S., Gold, C., Pedersen, N. L., Malmberg, B., Nilsson, S., & Rovine, M. (2004).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 study of older unlike-sex twins. *Aging Ment Health*, 8(3), 187-195.
- Th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1998). *National Elder Abuse Incidence Study*. http://www.elderabusecenter.org
- Tsukada, N., Saito, Y., & Tataru, T. (2001). Japanese older people's perceptions of elder abuse. *J Elder Abuse & Negl*, 13(1), 71-89.
- Yang, K. M. (2003). *A study of the elder abuse in domestic setting, the coping strategies, and the abuse res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Psychiatr Rev*, 17, 37-49.

Dependency, Abuse, and Depression by Gender in Widowed Elderly

Kim, Ok-Soo¹⁾ · Yang, Kyoung-Mi²⁾ · Kim, Kye-Ha³⁾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3) Doctoral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pendency and abuse on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in widowed elderly. **Method:** A convenient sample consisted of 246 widowed elderly who were more than 65 years old in four cities.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ugust to September, 2002. A dependency Scale developed by Ahn (1999)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dependency.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were measured by 10 items for emotional abuse and 7 items for physical abuse selected out of the Conditions Scale of Elder Abuse. The level of depression was measured by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The SPSS WIN 11.0 version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 In male widowed elderly, dependency affected depression indirectly through emotional abuse. While in female widowed elderly, dependency affected depression directly and affected emotional abuse indirectly.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dependency was the most explainable variable on depression in widowed female elderly. Therefore, it dependency should be assessed first in nursing intervention to relieve depression of widowed elderly.

Key words : Widowed, Elderly, Dependency, Elder abuse, Depress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Ok-Soo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703 Fax: +82-2-3277-2850 E-mail: OHONG@ewha.ac.kr